

HEADLINE NEWS

시민과 함께 하는 봄맞이 대청소 실시 (미국: 오스틴市)

미국 오스틴市는 4월 초에 봄맞이 대청소 (Clean Sweep Across Austin 2004)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로 19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인근지역사회는 물론 市 전역을 포함하여 확대 실시하게 된다. 대청소 행사에는 지역사회단체와 학교는 물론 시민 단체, 학생조직, 남·여학생클럽, 노동자단체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참가자들은 행사 당일 오전 8시부터 11시 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인근지역을 청소하거나, 공원이나 공공장소를 선택하여 청소한다. 市 전역에서 봄맞이 대청소가 끝나게 되면 Town Lake의 Festival Beach에서 펼쳐지는 야외파티에서 참가자들에게 점심을 무료로 나누어 주고, 시상식 및 가족단위 행사들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참여에 대한 문의와 참가 신청은 인터넷(www.keepaustinbeautiful.org)과 전화로 할 수 있다.

(www.ci.austin.tx.us/news/2004/cleansweep_2004.htm)

HIGHLIGHTS

도시관리

- ① 오래된 도시의 버려진 도심지역 재개발 추진 (미시간州 랜싱市)
- ②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재개발 계획 발표 (디트로이트)
- ③ 「아나코스티아 수변 재개발 계획」 추진 (워싱턴 D.C.)
- ④ 커뮤니티의 물적환경과 비만 및 각종 질병과의 연관성 연구 지원 (미네소타)

도시환경

- ⑤ 대기오염 감소 위해 매주 수요일 차량운행 제한 (로마)

도시교통

- ⑥ 버스 서비스를 '지하철형'으로 개선해 이용률 제고 추진 (버지니아州: 페어팩스 카운티)
- ⑦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첨단장치 도입 (볼티모어)
- ⑧ 웹사이트를 통해 교통사고 정보 제공 (아칸소州: 포트 스미스市)

사회복지·문화

- ⑨ 공공도서관 "질문하기" 서비스 확대 실시 (시애틀)
- ⑩ 공공도서관의 기금마련을 위한 도서관매전 개최 (오스틴)
- ⑪ 노숙자들의 특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 발표 (LA)

행재정

- ⑫ 여성사업가들에게 市정부의 조달 및 입찰과정을 소개 하는 행사 개최 (애틀랜타市)
- ⑬ 관공 공사에 전자 입찰 방식 도입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① 오래된 도시의 버려진 도심지역 재개발 추진 (미시간주: 랜싱시)

미국 미시간주는 지난 10년간 운영해온 「브라운필드(Brownfield) 재개발 정책」을 새로 추진중인 「Cool Cities Initiative」와 연계하여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Cool Cities Initiative」는 오래된 도시의 구도심과 내부 교외지역의 중심을 재정비함으로써 20~30대 젊은층들의 주거, 문화, 소비 활동을 촉진시켜 활력 있는 도시를 유지하는 한편, 도시화된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여 도시 주변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제어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와 연계하여 랜싱시는 구도심부의 재건과 관련있는 브라운필드 재개발 프로젝트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원과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브라운필드’는 산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도시화된 지역에 남아 있는 황폐하고 오염된 토지 및 건물을 의미한다. 기존에 공장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다른 용도에 의해 환경적으로 오염되어 방치되었거나 버려진 토지를 전부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www.detnews.com/2004/metro/0402/18/a01-68077.htm)

②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재개발 계획 발표 (디트로이트)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는 최근 시동쪽의 1,200에이커 구역에 대한 재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위에서 아래까지」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주거, 상업, 오피스 용도의 혼합과 함께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까지 다양한 소득계층을 혼합하여 수용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그동안 도심 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밖에 없었던 도심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기존의 커뮤니티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시 사용했던 공권력을 더이상 행사하지 않고, 거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주택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커뮤니티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커뮤니티 내에 있는 비어 있는 땅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커뮤니티 회복 정책도 전개할 예정이다.

(www.smartgrowth.org/news/article.asp?art=3914&state=23&res=1152)

③ 「아나코스티아 수변 재개발 계획」 추진 (워싱턴 D.C.)

미국 워싱턴 D.C.는 최근 「아나코스티아(Anacostia) 워터프론트 재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市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우선 오염된 강을 정화하고, 8개 지점을 중심으로 한 개발지구에 46ha의 오피스공간과 20,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강의 양쪽을 따라서 25개의 박물관과 기념물을 공원~자전거도로~산책로와 연계하여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市の 남동쪽에 위치한 아나코스티아강은 주변에서 나오는 쓰레기, 산업 폐수, 비점원 오염물질의 증가로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이며, 각종 개발로 인해 강변 생태계도 크게 훼손되었다. 市는 이번 사업으로 강을 살릴 뿐 아니라 인접한 주거지역을 개발하고, 나아가 주거지역과 연계하여 문화 및 여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대도시권 전체를 활기차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construction.com/NewsCenter/Headlines/AR/20040122t.asp)

(www.anacostiawaterfront.net)

④ 커뮤니티의 물적환경과 비만 및 각종 질병과의 연관성 연구 지원 (미네소타)

최근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도시계획학과와 공중보건학과는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으로부터 6억원을 지원받아 주거밀도, 토지이용 혼합도, 가로구조, 보행로 등 커뮤니티의 물적환경이 거주민의 걷기와 육체적인 운동량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만과 심장병 등의 질병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우선 금년에는 물적환경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72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료를 구축할 계획이며, 연구는 앞으로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은 도시의 물적환경과 거주민의 건강 및 생활양식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매년 연구제안서 심사를 통해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www.twincities.com/mld/twincities/news/local/8138262.htm)

도시 환경/도시 교통

■ 세계도시동향 ■

5] 대기오염 감소 위해 매주 수요일 차량운행 제한 (로마)

이탈리아 로마市는 대기오염 감소를 목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市당국은 향후 10주간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이부제로 차량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68유로(약 8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전기나 메탄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승용차나 모터 달린 자전거 등 친환경적 차량은 이번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市의 도심 유적지 이면도로는 매년 갱신해야 하는 특별면허를 가진 차량에 한해서만 운행이 허용돼 왔다.

(Daily Focus, 2004. 1. 29)

6] 버스 서비스를 ‘지하철형’ 으로 개선해 이용률 제고 추진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Fairfax) 카운티는 최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버스에 지하철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하철처럼 환승을 편리하게 하고, 버스 도착시간도 쉽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 노선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핵심이 있다.

교통당국은 이를 위해 노선 혼란을 유발하는 중복노선을 없애고, 유사기능의 일부 노선을 통합하여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운행시간의 연장, 비첨두시 및 주말 서비스 강화, 스마트카드 도입을 통한 지하철과의 연계성 개선 및 보다 다양한 환승 옵션을 제공하여 버스 이용의 연속성을 증진시킬 예정이다. 관계 당국은 이러한 버스 서비스 개선을 통해 이용자들이 지하철처럼 버스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년 이내에 30%의 버스 이용 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www.washingtonpost.com/wp-dyn/articles/A22388-2004Feb7.html)

7]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첨단장치 도입 (볼티모어)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는 최근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각종 첨단장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200여개 주요 버스정류장에 버스 도착 예정시간을 알려주는 전자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버스에 GPS를 장착하여 정보 제공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보안 카메라 및 도착예정 버스정류장 안내시스템, 차량의 기계적 결함을 알려주는 시스템, 승하차 인원 자동집계장치 등을 버스에 장착할 예정이다. 'Maryland Transit Authority'가 주도하는 이 계획은 2006년 완료가 목표이며, 총 5천만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시는 2년 전 버스 운행 중 차량 결함으로 인해 승객과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후 이러한 첨단장비 도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첨단장비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버스 서비스를 보다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baltimoresun.com/news/local/bal-next0209,0,4420584.story?coll=bal-local-headlines)

8] 웹사이트를 통해 교통사고 정보 제공 (아칸소주: 포트스미스시)

미국 아칸소(Arkansas)주 포트스미스(Fort Smith)시 경찰당국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지역 내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교통사고 정보에는 사고 위치, 사고 처리 완료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고, 자료 업데이트는 2~5분 간격으로 이루어진다.

시경찰당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교통사고 정보를 제공하면 개별 운전자들의 통행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고, 교통방송국 등 관련기관도 교통안내 정보의 자료 출처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국은 이러한 교통사고 정보 외에 일부 경찰보고서 등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등 대민서비스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www.swtimes.com/archive/2004/January/21/news/police_online.html)

9 공공도서관 “질문하기” 서비스 확대 실시 (시애틀)

미국 시애틀市 공공도서관의 “질문하기(Ask A Question)” 서비스가 3월부터 지역도서관들과 연계한 온라인 정보서비스로 확대·제공되고 있다. 법률관련 정보 제공은 ‘Washington State Law Library’와 ‘King County Law Library’에서, 상세한 의학정보 검색은 ‘University of Washington Health Sciences Libraries’에서, 원예에 대한 질문은 ‘Elisabeth C. Miller Library’의 도시원예학센터에서 도움을 주기로 했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들의 정보 검색을 돕기 위해 이메일서비스 외에도 실시간 채팅도우미서비스를 실시하여 더 많은 정보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도서관 홈페이지(www.spl.org)에서 “질문하기”를 클릭하면 볼 수 있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www.spl.org/default.asp?pageID=about_news_detail&cid=1078159555031)

10 공공도서관의 기금마련을 위한 도서판매전 개최 (오스틴)

미국 오스틴市 공공도서관의 기금마련을 위한 도서판매행사 「Monster Book Sale 2004」가 3월 말에 개최되었다. 많은 도서애호가들과 할인행사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은 수만종의 도서, 잡지, Video, CD, DVD, 컴퓨터소프트웨어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물건을 사기 위해 매년 이 기금모음행사에 모여든다. 이 행사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은 1~2달러밖에 되지 않지만, 2003년 매출액이 69,000달러에 이르는 등 성공적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토요일 10시에 특별행사로 인기있는 책의 초판, 예술관련 서적, 수집품들 중 희귀한 것을 엄선하여 도서관회원을 대상으로 경매에 부치기도 했다.

이번 행사 수익금은 여름독서프로그램을 위한 장려금이나 꼭두각시공연에 필요한 자금 지원, 도서관 조명시설 등 기본적인 물품 구매 비용 등 도서관을 위해 사용된다. 매년 열리는 이 도서판매행사는 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www.ci.austin.tx.us/library/news/nr20040211.htm)

미국 노숙자들의 특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 발표 (로스앤젤레스)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노숙자들의 특성을 조사·분석한 연구결과보고서가 최근 발표되었다. 'Weingart Center'가 작성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카운티 내 노숙자들의 숫자, 공간적인 분포, 인종, 나이, 가족관계, 육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교육정도, 소득, 노숙년수 등 자세한 인구·사회·경제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카운티의 노숙자 인구는 80,000명에 이르며, 공간적으로 특정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남자가 ¾ 이상을 차지하며, 평균나이는 40대, 장애인이 ¼,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으며, 고졸이 ½ 이상,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7명 중 1명은 현재 저임금 일자리에 고용되어 있고, 10명 중 3명은 노숙자를 위한 임시 쉼터에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과 PDF 보고서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weingart.org/institute)

미국 여성사업가들에게 市정부의 조달 및 입찰과정을 소개하는 행사 개최 (애틀랜타市)

미국 애틀랜타市는 市에서 사업하기를 원하는 여성사업가들을 위해 「애틀랜타와 사업하는 여성들」이라는 행사를 최근 개최했다. 市는 이번 행사에서 여성사업가들의 활동에 장애가 되는 정보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 市의 조달 및 입찰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여성사업자들, 市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체 대표들과 함께 원탁회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市정부의 입찰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주요 계약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번 행사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 및 여성전문인력 교류라는 측면에서 참석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www.ci.atlanta.ga.us/media/medadv_womensbusinesscoa_030804.aspx)

관급 공사에 전자 입찰 방식 도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 정부는 도로 및 교량 건설 사업에 전자 입찰(E-bidding)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전자정부(E-government) 실현의 기치 아래 도입되는 전자 입찰 방식은 입찰 단계 및 과정을 입찰 참여업체의 입장에서 단순화시켜, 계약업자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도 기록의 관리 및 저장이 용이해져 관련 공무원의 업무 경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당국은 이러한 전자 입찰을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 도입하여 왔으며, 이를 위해 “BC Bid”라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www2.news.gov.bc.ca/nrm_news_releases/2004TRAN0001-000078.htm#)